

트럼프 ‘이란 때리기’...북 비핵화 협상 압박용

이란엔 ‘채찍’, 북한엔 ‘판 살리기’ 정반대 접근법 불턴 “운반 가능한 핵무기 추구 포기...두 정권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 이란 제재 복원이 국제사회에 드리운 파장이 미국과 북한 사이의 비핵화 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공통적으로 핵 폐기라는 속제를 안고 있는 이란과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접근법은 서로가 무관하지 않은 동전의 양면과 비슷한 관계로 볼 수 있다.

다만 두 나라를 향한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 방식은 거의 정반대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전후로 북한에 대화의 손길을 내민 것과는 달리 이란에 대해서는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이룬 핵합의를 파기하고 고강

도 제재를 되살리며 대립각을 키워가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제재가 다시 발효된 7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이란 제재는 역사상 부과된 가장 뼈아픈 제재”라면서 “11월에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압박했다.

반면 북한을 향해서는 압박과 대화의 ‘강온양면’ 전략을 펴고 있지만 초점은 ‘판 살리기’에 맞춰져 있다. 비핵화 약속 이행을 위해 제재를 엄격히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하면서도 정상 간 ‘친서외교’와 부드러운 외교적 수사를 통해 대화의 동력을 살리는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슈퍼 매파’ 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까지 대화의 여지를 열어두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는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방북할 준비가 돼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보낸 친서에서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힌 것도 두 나라에 대한 대조적인 접근법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핵무력 완성을 주장하는 북한과 초기 개발단계에 멈춰선 이란의 ‘핵능력’ 차이, 그리고 동북아와 중동에 각각 기반한 지역패권전략의 차이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때리기’를 대북 협상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대화를 통한 해결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이란처럼 강경하게 다룰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잠재적 압박’의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본격 시작된 7일(현지시간) 이란을 방문한 리용호(왼쪽) 북한 외무상이 테헤란에서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성격을 띠고 있다는 얘기가.

특히 미국의 대 이란 제재 부활 조치가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제재에 불만을 제기하는 시점에 이뤄져, 무언의 압력 또는 경고가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

다. 미국 폭스뉴스는 전날 대담 프로그램에서 “북한이 불평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압력을 올리고 있다”며 이런 가능성을 시사했다. 불턴 보좌관이 미국 내 대북 매파들이

주장해온 북한-이란 ‘핵 커넥션’을 다시 들고 나온 것도 이와 맞물려 주목된다. 불턴 보좌관은 연일 방송출연을 통해 북한과 이란에 나란히 압력을 가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다.

불턴 보좌관은 전날 CNN 방송 인터뷰에서 “역사적으로 이란과 북한은 핵무기 운반 시스템인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협력해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북한의 시리아 원자로 건설을 예로 들고 “핵과 관련해서도 그들이 함께 일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주장, 북한과 이란을 동일선상에서 압박했다.

이어 그는 “이란과 북한에 대한 대응은 정확히 똑같다고 생각한다. 운반 가능한 핵무기 추구를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 두 정권에 최대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며 본질적으로 이란과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구글, ‘독도’ 동해·일본해로 병기

반크 활동 성과...미국 사이트는 ‘시마네현 소속’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한국과 미국의 구글 사이트(www.google.com)에서 검색창에 영어로 ‘dokdo’, ‘Liancourt Rocks’, ‘takeshima’ 등을 입력하면 위치는 ‘동해·일본해’, 최고점은 서도의 이름인 ‘대한봉’(Daehanbong)으로 나온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dokdo’ 등을 치면 위치는 ‘일본해’, 소속은 ‘시마네현 오키’로 검색되는 것을 확인하고 네티즌과 함께 시정 활동을 펼친 데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당시에는 최고점은 표시되지 않았다.

박기태 반크 단장은 “구글이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여 독도의 위치를 동해·일본해로 병기하고, 최고점까지 대한봉으로 반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도 독도의 소속을 검색하면 한국 구글에서는 아무런 표기가 없고 미국에서는 ‘시마네현 오키’로 뜬다. 이에 대해 박 단장은 “여전히 일본 측에 유리하게 편집해 세계에 알리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며 “완전한 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글에 계속 항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크는 앞으로 재미동포, 현지 한글 학교와 손잡고 시정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활동에 동참할 재미동포는 구글 검색 결과 ‘피드백 보내기’(Send feedback)를 통해 건의하면 된다.

한편 반크는 이날부터 사흘간 독도와 울릉도에서 청년 독도 홍보대사들이 참여하는 ‘2018 독도 탐방 캠프-독도를 가슴에 품고 대한민국을 세계로’를 개최한다. /연합뉴스



포르투갈 몬시케 산볼 포르투갈 남부 지역 온도가 45도를 오르내리는 가운데 7일(현지시간) 몬시케에서 주민들이 눈앞로 다가온 산볼을 지켜보며 대화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15년간 감금돼 ‘주술사 성노예’

인도네시아 경찰, 20대 여성 구출

인도네시아의 한 20대 여성이 13살 때 마을 주술사에게 납치돼 ‘성노예’로 지내다 15년 만에 구출됐다.

8일 인도네시아 매체 자카르타포스트와 영국 BBC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술라웨시 통아주 경찰은 최근 동글처럼 생긴 바위 틈새에서 15년간 갇혀 지내던 28세 여성을 구해냈다.

이 여성을 납치한 것은 올해 83살 된 마을 주술사로, 민간요법으로 주민들을 치료하고 결혼·연애·사업 분야 등의 고민상담도 해주는 인물이었다.

그는 낮에는 피해자를 바위틈에 머물게 하고 밤이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적으로 학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13살이던 2003년, 가족과 함께 치료를 위해 방문했다가 그곳에 머물게 됐다.

이후 주술사가 가족에게는 피해자가 일자리를 찾아 자카르타로 떠났다고 거짓말했고, 친척들이 이 여성을 찾으려 수 소문했지만 결국 실종 처리됐다는 것이다. 현지 주민은 “피해자가 세뇌된 것처럼 보였다”면서 “주술사가 섬기는” 진 ‘이라는 존재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 도망가거나 다른 사람을 만나기 두려웠다”고 전했다.

주술사에게는 아동보호법과 성적 학대 혐의가 적용된 상태로, 아동보호법상 유죄가 인정되면 최고 15년 형이 가능하다. /연합뉴스

“시카고 시장 총기폭력 트럼프 개입 절실”

민주 정치인들 강력한 포괄적 대책마련 촉구

인종분리와 빈부격차, 총기폭력 악순환을 겪고 있는 미국 시카고에서 램 이매뉴얼 시장(58·민주)의 실정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시카고 저소득층 흑인·히스패닉계 다수 거주지역이자 범죄 다발지역인 웨

스트사이드의 라 손 포드 일리노이 주 하원의원(46·민주)은 7일 폭스뉴스 ‘폭스 앤드 프렌즈’에 출연, “이매뉴얼 시장이 임의로 시카고를 ‘트럼프 금지 구역’(Trump-Free-Zone)으로 선언한 것에 개의치 말고, 총기폭력 해결을 위한 인력과 자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포드 의원은 지난 주말 시카고에서 70여 명이 총에 맞아 12명이 숨지고 59명이 부상하는 등 총기폭력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트럼프가 애정하는 프로그램으로 알려진 ‘폭스 앤드 프렌즈’에 출연, 도움을 호소하면서 “시카고에 트럼프 대통령 개입 요구 목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다. 그는 “일요일 오전 7시, 내가 다니는 교회 앞에서 3명이 총에 맞아 1명이 숨졌다. 믿을 수 없는 일”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시카고에 와서 만성적 총기폭력 해결을 위한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책을 발표해달라”고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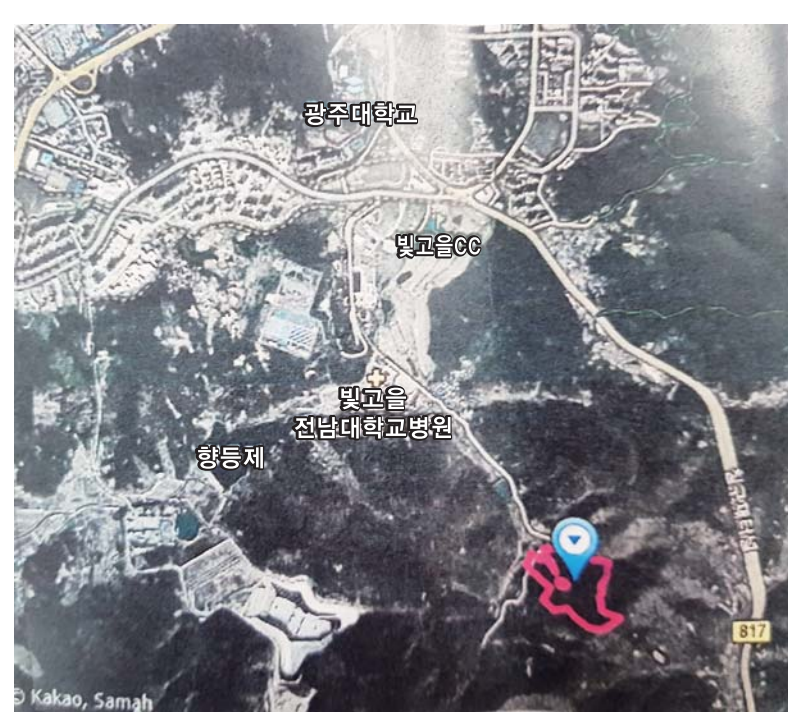
버락 오바마 행정부 초대 백악관 비서실장 출신인 이매뉴얼 시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반발, 시카고를 ‘불법체류자 보호 도시’(Sanctuary City)로 선포한 데 이어 작년 9월 미 법무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DACA) 시행 중단 방침을 발표한 후 “트럼프 대통령이 무어

라 말하던 시카고는 ‘트럼프-프리 존으로 지켜질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에 대해 시카고 선타임스는 “이매뉴얼 시장의 반(反) 트럼프 행보는 ‘전국구 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 강화 및 트럼프 이민정책으로 인해 위협받는 히스패닉계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라고 분석했다.

포드 의원은 “이매뉴얼 시장이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는 데 대한 대가가 너무 크다”면서 “주민들을 위해 연방 노동부, 의료 당국 등과 긴밀히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

덕남동 임야, 투자가치 좋습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550평
공유지분,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200평 이상)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되고 있음(산64-21번지)
- 매매 - 평당 17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문의. 010-6834-7400